

# “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 協會在職 기록과 나의 提言 —

任 仁 燦 / 大韓建築士協會 事務處長

協會가 셋방신세를 면치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또 이삿짐 옮길 생각으로 걱정이 앞서곤 하던 지난날, 불품은 없었지만 前會館이 서린동의 명물로 존재하기까지는.....

금년 2월24일로서 협회 근무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본인이 설계사무소를 開業運營했던 4년여 세월을 제외하고는 협회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어 나의 젊음과 인생을 협회에 바쳐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협회에는 1974년 2월20일 서울시支部 設計圖書審議委員職責으로 입사케 되었으며, 당시 지부 高鎭鶴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해서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당시 설계사무소 운영에 있어 너무나 고지식하게 하다 보니 측근에서도 지부운영이 즉, 회원과의 직결이라는 것을 알아 본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게 되었다.

협회 생활은 전에도 경험이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낼 수 있었다. 하루 평균 80여건의 設計圖書를 심의하고 나면 圖面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로 눈물이 나왔으며 눈도 침침해 졌다. 그러나 회원으로 있다가 협회직원이 되고 보니 나의 집안일이라 생각되어 사명감에 불타 웬 시간이 그리도 빨리 가는지 금방 하루 해가 바뀌고는 했다.

다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기로 한다.

## 協會發展이 곧 會員의 發展

10년 전에는 회원수가 약 1천3백명인데 비해 지금은 약 80%가 더 늘어났다. 그러나 會員社의 각자 업무량이나 개인의 수입은 오히려 10여년 전이 좋았다고 기억되어 회원의 발전이 곧, 협회의 발전인데도 비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흔한 예로 회원 중의 몇분은 회원들은 사무실 운영난으로 허덕이는데 협회예산은 팽창한다는 불평을 털어 놓았다. 회원 한사람이 내는 회비가 연간 몇십만원씩 되니까 협회가 비대해 진다는 푸념이 들려 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은, 모든 일은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보수 요율 지키기에 성실을 다 한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현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협회라도 발전하여 사회적인 우대와 권위를 신장시킨 다음 會員社를 끌어 올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봤다.

## 會館마련과 建築士協會의 積極적 PR이 急先務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협회가 셋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서너 번씩 이삿짐을 옮겨 보았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또 이삿짐을 옮길 생각으로 걱정이 앞서곤 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서울支部 會館 建立委員會 결정에 따라 3천여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회관을 마련하려고 나섰으나 별로 마땅한 건물이 없었다.

그래서 용산 한강로 방향, 안국동 한국일보 옆자리, 동숭동 모학원, 삼각동 모빌딩 등을 대상으로 구매시도를 해 보았으나 역시 마땅치가 않았다. 그러다가 서린동 89번지 前會館자리가 나타나 당시는 불품이 없었지만 장래를 보고 계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도로가 좁아 회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 1미터 정도의 도로를 통해야 했으며, 1층은 이발소·다방, 2층은 싸롱,

3 층은 술집, 4 층은 칸칸이 막은 부실한 사무실 등이 자그마치 40여개나 들어 있는 형편없는 빌딩이었다. 그리고 건물을 명도 하는데도 경찰관과 구청직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한 사람씩 강제 명도토록 해야 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다 할 건물주인이 없었다. 당시의 실무자는 황 신연총무와 본인이었으며 支部長은 김만성氏였고 會長은 韓昌鎭氏였는데 밤마다 세들었던 사람들의 공갈협박 때문에 시달림이 많았다.

그러한 고비를 넘기고 6 개월 정도 지나자 都市計劃事業이 결정되어 회관 앞으로 70미터의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덕분에 회관은 대로변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前會館은 서린동의 명물로 존재했었으며, 그로 인한 협회인상이 대단히 좋았던 것을 여러 회원이 두루아는 사실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불품없는 前會館이었으나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이라는 이점 때문에 대외적으로 建築士協會 PR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前會館 지역이 10여년에 걸쳐 再開發地區로 시행되므로써 어차피 自體會館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회관을 매각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비난이 뒤따랐다. 빨리 팔고 빨리 사서 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공통사항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다. 법인체에서 재산을 사고 팔기 때문에 애로가 더 많았다. 일부에서는 회관을 늦게 매도하여 地價가 폭등했으니 이제 강남에 간다 하더라도 평당 2 백만원짜리도 살 수 없으니 현 임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도 받았다.

실무자로서 아득하기만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파는 부동산은 더 받고 사는 대지는 싸게 사야 되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할 수 없어 강남지역의 부동산업자와 복덕방 20여군데를 돌아 다니며 마땅한 대지를 물색했으나 가격의 차이로 평당 1 백만원 짜리를 찾기로 불가능했다. 주택지도 웬만하면 150여만원을 웃돌았다.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집식구까지 동원하여 물색해 보았다.

결국 현재의 회관부지로 선정된 40미터 도로변의 정남향에 위치한 570.2평을 평당 130만원선에서부터 흥정하기 시작했다. 복덕방과 수차에 걸쳐 소주를 마시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가 10여명이나 되었다.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대표되는 분을 만나 접촉을

시작했다. 첫대면에서 본인은 좋은 인상을 주었고, 본인 개인이 사는 것으로 알았던 지 대표되는 분이 소유자들과 회의를 가졌던 것 같다.

액수조정에서도 몇차례씩 고무줄 달이기를 했다. 결국 쌍방이 팔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상대방은 사업을 하는 분이라 벌써 그 기획실천에 들어간 것 같았다. 계약은 협회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평당 100만원씩에 이루어 졌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약하자는 말도 있었다.

사실 얼마 안되는 액수인데도 엄청난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절반이 세금으로 나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평당 150만원씩 100% 현찰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았으니 해약하자는 말이 나올만도 했다.

이렇듯 고생 끝에 協會財産은 증식되었다. 왜냐하면 신축회관 근처에 매머드 市場商街가 들어서게 되어 땅값이 평당 300만원을 훌타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한적한 곳인지는 몰라도 몇년 후에는 잘살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며 신축회관이 완성되면 협회의 권위는 더욱 신장되리라 믿는다.

오는 8 월경 준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建築資材業체의 많은 도움과 비교적 싼 工事費로 훌륭한 대한민국의 건축사협회 회관을 짓기 위해 임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

協會란 일을 만들어서 해야하는 곳,  
또한 회원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센터 역할의 단체

---

협회라는 조직체는 민간단체도 아니요 공무원도 아닌 중간의 公務를 대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의 집행만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 연구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대다수 회원의 말을 빌자면, 회원은 협회 외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따라서 협회만이 모든 어려움을 풀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면 간혹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 태도 등이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물론 회원은 주인의식을 고귀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며 직원들은 친절과 봉사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모든 방문객에게 인사하기란 힘이 들겠지만 공손한 인사와 대화로서 회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를 돈

연구하고 발전하는 협회가 되기위해선 아직도 高級人力의 두뇌가 절실히 필요한데.....  
協會는 항상 人件費를 가지고 갑론을박, 협회의 주인은 회원, 主人意識을 고귀하게 행사해야 할.....

国会탄생 이래 처음으로 참석한  
建設委주최  
공청회에서  
建築士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設計士로 통하기  
쉽다는데……  
建築士協會의  
적극적 홍보활동이  
절실……

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항상 인건비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느냐, 예산은 해마다 팽창하는데 회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회원이 간혹 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협회라는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職能別 인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며 고급인력의 두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협회 직원의 인건비는 他業体の 절반도 못되는 수준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 예산을 보면 全国 市道支部 13개소+本部해서 14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사실상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따라서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일은 회원이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職員 개개인의 노력의 결실이  
協會發展의 原動力이 된다

본인, 특히 직원과 건축사의 입장에서 볼 때 建築士協會의 사회적 PR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1978년 부터 1983년 말까지 라디오·TV 등의 출연회수 1 백회를 기록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성의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 회원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좀더 建築士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대담이 아쉽다.

이렇게 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大韓建築士協會와 建築士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모든 것은 회원은 회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하고 싶다.

말이 나온김에 우리 협회의 현실을 돌아본다. 주주인 회원이 직원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애심이 있어야 그만큼 존재의식과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원은 대우만 받고자 했지 직원에 대한 사랑과 아낌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다. 따라서 우수한 능력과 학식이 풍부한 직원은 보수도 적은 데다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여 그동안 여러명이 협회를 떠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협회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어 그러한 문제들이 차츰 해소되어 가고 있다.

国会탄생이래 처음으로 建設委주최  
공청회에서 本人이 公述人추천 연설

1981년 11월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내용은 ① 特定建築物 조치법 제정에 관한 件 ② 建築士에 대한 업무 질의답

변이었다.

앞 좌석에는 1 백여명 이상의 관계인들과 각 정당의 총재,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40여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본인은 公述人席에 住宅局長, 나 상기교수, 조선일보 논설위원, 판사 등과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으로 표기된 것을 보고 호뭇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일과 중에 원고작성과 기타 의견을 만드느라 고심했다.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으로서 추천을 받은 것이지만 협회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고 임원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시간과 원고마저 미비한 상태에서 약 30여분간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저기에서 국회의원들이 建築士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위법 건축물은 建築士가 조장하고 묵인하는 것으로서, 즉 부조리를 조장하는 사람으로서 建築士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연간 행정처분 대략 건수라든지 건축사업무의 애로사항과 현행법의 모순점에 대해 질문하면 본인은 답변하는 입장이 되었다.

당시 본인은 국회 건설위원, 기타 관계관들과 저녁만찬을 나누면서 이런 것을 느꼈다. 어떤 곳이든 자주 찾아 보고 자주 만나 애로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화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 날 저녁에 建築士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設計士로 통하기 쉽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분들은 왜 建築士가 단합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덤핑을 마구하여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인상을 받느냐고 물었다. 또한 한국의 建築物의 특징과 미관이 천편일률적으로 성냥갑같은데 그것도 建築士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나는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나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다. 직원과 건축사라는 입장에서 였다. 그리고 전회원이 단결하고 전직원이 업무를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면, 1~2년 사이에 전혀 다른 형상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와 협회 위치가 구축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다.

勤務中에 제일 힘들었던 일

사무처장 외에 부장을 포함하여 7명의 사 직원을 받아 처리할 때와 신규직원을 공채하여 업무를 취급할 때다. 1980년 말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표 수리를 할 때였다.

사실 본인도 근무할 의욕을 상실했던 시기였고 서울지부에서 근무하다 본부로 발령

이 나자마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사무실 분위기였다. 본인으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한 지경이었다.

과거 한 때는 임원이 바뀌면 임원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해서 하나의 취직 알선 장소로 사용될 때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가 몇 개월 계속되니까 전쟁이라도 하는 듯한 사무실 분위기여서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럭저럭 6 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본인은 이틀에 한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감을 때마다 머리털이 한줌씩 빠졌다. 얼굴은 야위고 입맛은 없어졌다.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원한다. 현재 새로 입사한 본부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을 따름이다.

---

#### 事務処長으로는

---

#### 最長期(제10대) 근무중

---

#### 建築士로서 최초로 事務処長職務

---

과거에는 임원이 바뀔 때마다 事務処가 흔들려야 했기 때문에 사무처가 회장 선거 등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허다 했다. 그리고 사무처를 믿고 출마를 하는 등의 부조리가 횡행했던 시절도 있었다.

사무처장직을 2개월 하다가 그만 둔 전임자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1년 8개월이라는 평균 수명은 없어진 셈인데, 지금 본인의 욕망은 하루빨리 建築士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와 협회를 떠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욕심은 젊음을 불태운 협회이기에 사회적으로 보장 받는 建築士像 정립을 위하여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참여해서 성취되도록 노력하고 싶으며 이에 부수되는 각종 제도개선과 회관신축을 성공리에 마쳐 준공행사를 치루는 일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태산같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年度別 협회족보를 써 달라는 많은 회원들의 청탁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세부적인 협회의 과거 生活談을 써볼 계획에서이다.

---

#### 會員을 위한 協會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터

---

직원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협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일부 회원에게서 각 시도 사무국 요원들이 나태하여 협회와 임원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힐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화합하고 노력할 때 사회적 권익과 협회발전은 자연히 뒤따른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원이 회원을 욕되게 하고 진정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 크나큰 제도의 개선사항의 근원이 되며 그로 인해서 전체 회원이 비위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회원은 직원을 사랑과 계도로써 대하고 직원을 회원을 존경함으로써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즉시 또는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선에 주력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

#### 일반회사와 다른 協會의 특이 體質

---

오늘 연구한 사항들을 몇년 후에는 꼭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협회의 업무인 것 같다.

협회란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 시원하게 해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을 회원들에게서 많이 듣는다. 또 인건비에 인색한 어떤 회원은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회관을 팔아도 모자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총회 때마다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협회는 스스로 일을만 들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연구한 사항이 10월에 와서야 案이 나오게 되면 이를 건의 내지 시행토록 추진한다 해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效果가 나타날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경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생산공장에서 100원을 투자한 제품을 150원에 팔았을 때 이윤은 50원이라는 결론을 얻는 것과 같은 기관이 아닌 것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협회창립 19여년 기간중 현재의 협회체제가 가장 안전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직접 대화를 통하여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상부상조하는 자세로서 신뢰하고 믿는 建築士界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提 言

---

물론 극소수 회원의 예이긴 하지만 대다수 회원의 불만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체적으로 동업을 하고 있는 회원, 즉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84년도에는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어져야겠다.

이와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대기업에

任員이  
바뀔 때마다  
事務処가 흔들려야  
했던 가운데  
사무처장직을  
2 개월하다가  
그만 둔 전임자도...  
불안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  
협회체제 가장  
안전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보는데,  
協會가 하고자 하는  
일에 會員이 앞장  
서줘야 하며,  
직원들은  
친절과 봉사로  
협회발전과  
국가적·사회적  
측면에서  
建築士의 권익신장에  
노력을.....

들어가서 월 50~100만원씩 받고 10억여원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줌으로써 대기업을 키워주는 행위, 아마도 이렇듯 물지각한 회원이 自省해야만 건전한 건축사계 풍토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② 設計費를 제대로 받고 建築士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는 신장될 수 없다.

③ 상호 비방을 삼가하고 서로가 직접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의 작품이나의 것만 못하다느니, 설계가 잘못되었다느니, 감리를 소홀히 했다는 식의 상호 비방은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本人의 使命

建築士의 권익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상황 속에서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선량한 건축사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本人은 국가적·사회적인 측면에서 建築士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법개정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認知하고 있으며, 또한 現行建築士法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본다.

현행법은 어디까지나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권한이 없어 建築士의 별척만 강화되는 실정이므로 建築士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으로는 설계사무소의 보호육성 지원 방안, 건축사보의 관리와 특혜조치, 건축사 사무소 등록업무의 개선, 건축사시험 자격연한 상한선 문제, 건축사 행정 처분에 대한 상부관청으로의 이관, 감리업무의 한계, 설계보수의 덤핑 방지책, 산재한 사무소의 합동 체제화 및 이에 대한 세제상·기타 특혜조치, 건축사의 설계 감리 동일화, 지역 도시설계의 유도화, 건축사 사무소의 부실운영 즉 무면허자와 동업행위 근절, 공무원의 의제사항, 엔지니어링 배제 및 모순점 등 이에 대응한 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本人이 在職時에 이를 마무리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며, 現職을 떠나더라도 훌륭한 法適用이 있어 建築士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때 설계사무소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本人이 해야 할 일은 뚜렷이 나타나 있다고 본다. 모든 연구는 본인 자신을 위하고 회원을 위함과 동시에 협회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는 것이다. <\*>

## 싱가폴 국제건축전람회 참관 안내

# SIBEX '84

Singapore International Building Exposition

84년 3월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싱가포르 국제건축전람회(SIBEX — Singapore International Building Exposition)는 24개국으로부터 건축 및 건설전문업자 18,000명이 참가하여 최근의 신자재·신장비 및 첨단 기술과 공법을 상호 비교·교환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축전람회입니다.

7박 8일로 예정된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정 / 전람회 참관 및 2개국 시찰  
(싱가폴 3박4일·홍콩 2박3일·대만 2박3일)
- 여행일자  
1984년 3월26일부터 4월 2일까지
- 여행경비 / 1,100,000원(항공료·숙식·관광포함)
- 신청마감 / 1984년 3월10일
-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584-0348·4248·1098)